

발제강연(1)

간호과정의 기본개념과 그 의의

—이 미 자
(美일리노이스대 간호대학교수)



오늘날 간호원들의 위치와 사회인식도가 많이 달라진 것은 간호원들의 해외 진출이 쉽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전문적 기능과 간호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현대과학의 진전과 의학의 발전을 병행하는 적응의 표현이며 마땅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 변화된 간호원의 기능들과 기술이 얼마만큼 자외에 의해서 발전된 것인지 질문해 보고 싶다. 이러한 발전 또는 변화를 뒷받침해 줄만한 간호학으로서의 이론과 철학이 없이 할 일만 많아진 결과가 되기도 했다.

할일이 많아졌으니 더욱 바빠지고 바쁘다 보니 생각할 시간이 없게 되었는데 어디에서나 간호원으로서의 학구적인 토론이 벌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학구적인 토론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자. 어떠한 학문이란 이론의 뒷받침없이 기술을 위주로 할때 학문으로서의 권위가 없어지며 하나의 기술적으로 전환되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 뉴욕에서 제창하는 Professional Nursing의 정의와 규제가 현재 간호학 지도자들의 고민과 진통을 표현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Professional Nursing이라 불리움을 받으려면 최소한 대학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제의로 미국에서도 많은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도 이 움직임을 눈여겨 보고 우리나라를

로의 계획과 발전을 위한 수단을 모색하고 강구해야 되리라 믿는다. 1960년대에 들어서 많은 지도자들의 선견지명으로 학문으로서의 간호학이 배양되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 시기에 같이 출발된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Nursing process이며 이는 간호학이 과학으로서의 학문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한다.

간호과정의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왜 이 간호과정이 과학적 근거를 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고 싶다.

이제까지 간호학은 다른 학문을 빌려 쓰면서 자라왔다. 의학은 다른 과학과목들을 빌려 쓰면서 복합하여서 의학이라는 학문을 이루었다. 간호학 역시 다른 과학들을 빌려쓰지만 복합하여 우리대로의 유일한 학문을 이루지 못한 채 의학의 뒤를 따르느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간호학이 학문으로서의 정립이 늦은 요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간호학은 자연과학 분야가 결여되어 있다. 간호학을 전공하는데 과학적인 뒷받침이 너무 약하며 여기서 과학이란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런 약점으로 학문으로서의 자신이 약해지고 그 학문을 실제로 옮겨야 하는 간호실행이 약하고 그러다보니 적당주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우리가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이상적인

건강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환자를 돌보는 다른 팀·멤버들과 동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확고한 학문적인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이 문제를 심각히 다뤄야겠다.

자기의 실력없이는 다른 건강관리요원과 진정한 토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획을 세워도 올바른 실행을 못할테니 시간낭비가 되고 만다. 우리가 학문으로서의 권위가 설때까지는 다른 멤버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어려우며 종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리라 예측된다.

둘째로 간호학은 전문직으로서의 긍지가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나아가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큰 장애거리가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간호학이 과학으로서 개발되고 장려된 것은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그리고 이제야 간호학박사과정이며 이로 인해 간호학은 많은 발전과 변천을 보는 가운데 진통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박사과정을 통해 배출된 간호원박사들이 1973년 당시 9백명 정도이며 간호학박사를 받지 아니한 간호원들도 간호학권내에 재환원하느라 노력하는 중이다.

이같은 현상은 간호학을 학문으로서의 권위를 올릴 뿐만 아니라 간호전문직에 대한 긍지를 가져다 주고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15년이 넘는 기간동안 미국보건의 장학금 및 생활비 보조의 공로가 컸으며, 재래의 간호원에 대한 관념을 버리고 여러과학분야로 진출하게 기회를 허락한 일반대학원들의 공로가 컸다고 본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 우수한 간호원들의 과학분야 진출이 허락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해부학, 생리학, 미생물학, 사회학, 교육심리학, 인류학 등의 분야로 진출하는 간호원들이 많이 나와야겠으며, 이러한 학문을 통달한 후 다시 간호학으로 돌아와 활용하는 역사가 이뤄져야겠다. 다시 말해서 간호학의 박사코스가 많이 설정되는 것에 간호학이 학문으로서의 생명이 달려 있다고 믿는다.

세째로 간호원들은 자신의 권리, 이익주장에 너무나 약하다.

제가 생리학자로 또 간호원으로써 보람있게 사는 변론을 「아끼는 간호학문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싶다. 이토록 아끼는 간호학을 제 나름대로 정의한다면 『인간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 예방·치료·재활을 도모하는 종합과학』이라

고 말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는 의학도 있고 다른 건강관리팀 멤버들이 있지만 우리가 초점적으로 이해해야할 것은 간호원이라는 위치와 기능때문에 오는 환자와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영적 문제를 총괄하여 다루고 환자간호를 coordinate하는 역할이 유일하다 보겠다.

즉 간호학은 다른 과학과 달리 종합과학일 뿐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환자간호에 옮겨야 하는 응용과학이란데 매력 있고 또 벽찬 도전이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도 간호학박사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들었다. 바람직한 일이며 축하해야 할 일이다.

간호학철학박사(Ph. D in Nursing)과정은 간호 연구를 주제로 하며 간호학박사 과정은 간호수행을 주제로 한다. 이 두가지가 모두 간호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한곳에서는 연구, 또 한곳에서는 수행을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서 Nursing research의 결과로 Nursing Practice의 근거가 되며, 또 간호이론 자체도 연구하는 과정을 거칠때 간호수행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가 많을때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 간호수행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며, 이 모든 노력이 합하여 간호학이 과학으로서의 체계, 권위가 서며 이상적인 간호가 환자에게 보장되리라 믿는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곧 간호과정(Nursing Process)라고 본다.

간호과정의 개념은 네단계에 걸쳐서 실천되며 이 네단계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고 항상 계속적으로 윤회되어야 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첫단계는 Nursing Assessment로서 간호원은 의사의 도움이나 진단없이도 환자를 진찰할 수 있어야 하며, 전인간호에 주력하여 환자가 처해 있는 가족, 사회, 국가관계까지 분석하여야 하고 생리적, 심리적 지적 사회, 경제, 문화배경과 주위환경을 고려하여야 이같이 얻어진 데이터를 분류, 해석, 조성하므로써 간호진단이 내려지게 된다.

둘째단계로 첫단계에서 이루어진 간호진단에 준하여 간호치료에 계획을 짜야 할 것이며, 이 계획에는 반드시 단기와 장기목표가 포함됨으로써 환자의 건강유지에 근본적 목표를 둔다. 이러한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서 간호치료에 우선

권이 정해지고 환자는 가장 과학적인 치료를 받게 된다.

세계 단계는 단기·장기 목표에 준하여 이루어진 우선권에 따라 종합과학에 기반된 간호치료를 하게 된다. 여기에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 이외에 의사와 협조하는 일 더 나아가서는 의사의 지시를 받는 치료가 포함된다. 의사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보다는 환자의 건강유지를 위해 질문, 토의 나아가서는 의사의 지시를 수정하도록 권유할 수 있어야 한다.

네째단계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일일이 과학적인 평가를 하므로써 간호원의 진단, 치료를 환자의 특수 필요에 충당시키고 이 평가에 따라서 치료의 효과가 없을 때는 다시 첫단계로 돌아가 Assess하는 재출발이 된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첫째 간호학이 학문으로서의 권위와 유일성을 창조,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호학 이론, 연구 그리고 실체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해야 된다.

둘째 간호학은 소비자(환자)를 위한 간호학형성이 그 궁극적 목적이 되며 이를 구현하는 것은 간호과정이라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세계 간호과정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중추적인 정신 또한 개념도 간호학이 종합과학 응용과학임을 믿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네째 간호학이 학문으로서 우대를 받을 때 다른학과 어깨를 겨루어 주종의 입장을 떠난 동조자의 입장에 설 수 있고, 이러한 여건이 구비될 때 간호원들이 존경받게 되며 간호원들은 진정한 사랑과 의미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섯째 간호학이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권리이익을 주장하는데 과감해야 할 것이며, 이는 간호학을 위할 뿐 아니라 우리의 대상자인 국가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소비자(환자)를 위함이기 때문이다.

<30페이지에서 계속>

거가 없으며 처치한 사실도 제대로 기록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고 학문으로서 자료가 되기위해서 이 SOAP형식에 따른 간호기록을 해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간호과정에 따라 기초자료수집, 문제사정하여, 문제를 우선 순위로 작성, 간호계획을 세워 간호를 수행하는데 SOAPIER를 적용하여 간호를 수행하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간호가 되어 교육과 연구에 도움이 되며 학문의 기초가 형성된다.

참고문헌

Ann Marriner, *The Nursing Process*, St. Louis, The C.V. Mosby, 1975.
Becknell, E.P. and Smith, D.M., *System of Nursing Practice*, Philadelphia, F. A. Davis, Co., 1976.
Johnson, M.M. et al., *Problem-Solving in Nursing Practice*, W.M. C.I. Brown Co., 1971.
Mayers, M.G.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Nursing Care Plan, New York; Prentice-Hall, Inc., 1972.

Saxton, D.F. and Hyland, P.A., *Planning and Implementing Nursing Intervention*, St. Louis, The C.V. Mosby Co., 1975.

Vaughan-wrobel, B.C. and Henderson, P., *The Problem-Oriented System Nursing a workbook*, St. Louis, The C.V. Mosby, Co., 1976.

Vitale, B.A. et al., *A Problem Solving Approach to Nursing Care Plans*, St. Louis, The C.V. Mosby Co., 1974.

Walter, J.B. et al., *Dynamics of Problem-Oriented Approaches: Patient Care and Documentation*, New York; J.B. Lippincott, Co. 1976.

Woolley, F.R. et al., *Problem-Oriented Nurs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1976.

강윤희, 문제제시 간호기록방법이 간호기록법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간호학회지, 7권 1호 1977, pp. i~9.